



전주 런파이프 '조선세프 한상궁'



임실필봉농악보존회 '동행'



고창농악보존회 '이팝소리꽃'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시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김제·임실·고창 4곳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하 지역브랜드) 사업대상지 및 공연콘텐츠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로컬) 특화 공연콘텐츠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사업수행주체)은 △전주 런파이프(주) △김제 예술집단열간 △임실 임

실필봉농악보존회 △고창 고창농악보존회 등 총 4곳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해당 시군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역에서 10회 이상 공연을 펼친다. 전주 지역은 런파이프(주) 주관으로 작품 '조선세프 한상궁 전주비빔밥 맛의 여정'이 전주 대서습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9시에 공연한다.

김제 지역은 예술집단 열간 주관으로 작품 '우리가 모르는 공취 결혼 후'이 김제 동헌 내 아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6시에

진행한다. 임실 지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작품 '춤추는 상쇠 <필봉백년>'이 임실필봉문화촌 취락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20시에 펼친다.

고창 지역은 고창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사이닝 고창>'이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7시에 이뤄진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브랜드 공연이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올해 진행되는 공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도민 문화 향유 노력 결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우수 지역 주관처 선정 · 오정환 팀원 문체부 장관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우수 지역 주관처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도민 문화 향유 활성화 우수 지역 주관처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또한 오정환 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재단은 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활동, 찾아가는 문화장터, 복지시설 투어 서비스 등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촉진을 독려하고, 전북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이용률을 높은 점 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2022년 전국 광역 시도 중 이용률 1위, 2023년 이용률 3위를 기록했다.

이에 재단은 앞으로 카드 이용 불편 계층 지원 및 지역문화 복지 강화, 지역 균형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문화예술 체험 분야 사용 증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환 팀원은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올해 사업 또한 증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오정환 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대·지역·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농심, 무형유산 가치 확산 '맞손'

'함께하는 K-무형유산'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6일 경북 공 흥복전(서울 종로구)에서 주식회사 농심(대표 이병학)과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승활동의 주역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활동기반을 확장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등의 반쪽 행사(팝업 행사)와 전통공예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농심은 '케이(K:한국의 아름다움을 잇다)데이'를 주제로 진행되는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의 제반 활동을 운영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가무형유산 관련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의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6일 경북공 흥복전(서울 종로구)에서 주식회사 농심(대표 이병학)과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쉽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승자들이 활발

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봄맞이 기획공연

연극 작은 아씨들 · 스탠딩 에그 · 김광석과 친구들 콘서트 진행

익산예술의전당이 활기찬 봄을 맞아 3월 27일부터 4월까지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연극 '작은 아씨들'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와 6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연극은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 소설이 원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마치 가(家)의 네 자매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 굵은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성장 과정을 담은 서사극이라 할 수 있다.

책임감이 강하고 우아한 첫째 메그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최우리가 연기한다. 당차고 솔직한 성격으로 희곡 작가를 꿈꾸는 둘째 조 역에는 최유하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셋째 베스 역에는 류이재가 출연한다. 화가를 꿈꾸는 막내 에이미 역에는 김서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3월 30일 오후 5시에는 '스탠딩 에그' 콘서트가 관객을 맞는다. 스탠딩 에그(Standing Egg)는 2010년 결성된 대한민국의 인디 그룹이다. 팀명은 작은 달걀을 세운다는 의미 그대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진정한 음악을 만들려는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달콤하고 편안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4월에는 '김광석과 친구들' 콘서트가 준

비페 있다. 4월 27일 오후 5시에 동물원과 박학기, 한동준 등의 출연진이 친구인 고(故) 김광석을 추모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원' 90년대 젊은이들의 꿈과 일상을 대변하고 소박한 서정미로 큰 사랑을 받았다. 싱어송라이터 박학기는 섬세한 미성과 음색, 감미로운 멜로디로 포크 음악의 봄을 일으켰다.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사랑을 감미로운 발라드곡으로 노래하는 포크 가수 '한동준' 등이 함께한다.

가수 김광석과 한 시대를 함께 품었던 이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그의 삶과 음악을 추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한 조기예매(20%) 할인과 회원 할인(10%) 등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관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며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과 문화예술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